

세계선교교회, 주와 함께 50년, 주를 향해 50년

세계선교교회 창립 50주년
 10월 1일 '하나님의 꿈' 특별부흥회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가 지난 9월 24일(주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창립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세계선교교회 성도들은 지난 50년을 돌보시고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50년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김창섭 담임목사는 "지난 50년 동안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 달려갈 50년도 주님과 함께 다음세대에 신앙을 전수하고, 적박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며, 천국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기 바란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또한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본문으로 "주와 함께 50년 주를 향해 50년"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성경에 두 번 나오는 에벤에셀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목상해 보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블레셋 군대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지만,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셨다"면서, "세계선교교



9월 24일 세계선교교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50년 동안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았다. ©기독일보

회를 위한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오늘이 자리가 가능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도 방법도 없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꿈도 주신다. 함께 더 맛지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고 권면했다.

찬양팀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이재영 장로의 대표기도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별찬양 그리고 2부 창립기념식으로 이어졌다. 50주년 특별영상을 시청한 후, 모세 선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특송을 올려

드렸다. 50주년 특별 케익 커팅 후에 이재국 장로가 원로 장로로 추대되고 이재영, 강석건 장로의 은퇴식이 열려, 믿음의 1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진한 여운으로 남겼다.

2대 목사 안병호 목사와 최은형 목사가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고, 3대 목사인 허번 목사가 축하했다. 허 목사는 "50주년을 맞아 50년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교회가 되라"는 권면을 담아 축하했다. 교회가 후원하는 '스트릿 컴퍼니' 이용석 대표의 사역 보고가 이어

졌다. 또한 이 교회는 창립기념주일마다 성찬식을 갖는다. 성찬식에서는 세계선교교회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갈 다시금 굳게 다짐했다. 모든 예배는 허번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필사 성경 전시회도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29일(금) 저녁 7시, 30일(토) 저녁 7시, 10월 1일(주일) 오전 8시, 11시에 '하나님의 꿈'이란 제목으로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원용수 선교사를 초청해 특별 선교부흥회가 열린다.

조셉 리 기자

美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미국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들에서는 오는 2026년부터 성중립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지난 23일 1~12학년 학교에 최소 1개의 성중립 화장실(School facilities: all-gender restrooms)을 제공하도록 한 상원법안 760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의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남녀 공용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성중립 화장실을 보장한다는 목적이다.

법에 따라 성중립 화장실에는 모든 학생들



성중립 화장실 ©기독일보

에게 개방돼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학교는 수리가 필요하거나 또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적시돼 있거나 즉각적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성

중립 화장실을 폐쇄할 수 있다. 아울러 성중립 화장실이 주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직원을 배정해야 한다.

법안에는 공립학교 교직원의 문화 훈련, LGBT 청소년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 무료 콘돔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콘돔을 받을 수 있고, 소매점은 일반 콘돔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나이를 물을 수 없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캘리포니아가 가장 강력한 LGBT 권리법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법안들은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서로를 수용하며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

라고 했다.

이밖에 뉴섬 주지사는 위탁 가정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문제와 관계 없이 위탁 보호 대상 아동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법안과, 성소수자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자문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서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성중립 화장실 설치로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 환경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캘리포니아 가족협의회(CFC) 등 기독교 단체들도 "공립학교 내 성교육 실패를 콘돔 제공으로 무마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하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초청합니다
2023 다민족연합기도대회
Heal Our Land!
 일시 2023년 10월 1일(주일) 오후 4시
 장소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주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오니 이 땅 미국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소서!

청교도들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웠던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제도를 버렸고, 공립학교와 대학 교육은 자녀들의 영혼들을 빼앗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아름다운 토대를 흔들고 있고, 교회들마저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다민족이 모두 함께 모여 역대하7:14 약속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속히 부흥을 보내셔서 나라를 고쳐주소서! 비상하게 간구하는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7:14)

대회 조직
 고문: 김춘근장로, 김영길목사, 김인식목사, 민종기목사, 송정명목사, 한기홍목사, David Andrade, Walter Tucker, Jorge Fuentes, Peter Xu, David Van
 대표 대회장: 한기홍 목사
 공동대회장: 강준민, 고태형, 구봉주, 김기동, 김경진, 김우준, 김중규, 김호용, 김한오, 노창수, 민경엽, 민승기, 박성규, 박신웅, 심상은, 신승훈, 이종용, 이호우, 진유철, 최홍주 (이상 목사, 가나다 순) David Diaz
 준비위원장: 강순영목사 (310 995 3986), 공동준비위원장: **심상은목사(7147224805)**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 (3235787938)
 주관: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
 공동주최: JAMA, OC교회,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은혜한인교회, 청교도신앙회복운동



‘지구촌은 나의 목장’ 故 임동선 목사 기념관 개관

탄생 100주년 기념 월드미션대학교에 마련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라는 비전으로 세계 선교에 온 삶을 바쳤던 故 임동선 목사의 기념관이 고인이 설립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4층에 마련됐다.

‘임동선 목사 기념관’은 고인의 생애를 기리고, 그의 업적을 한데 모아 고인의 선교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념관에는 고인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생전 사진 자료를 비롯해 고인의 소장품, 고인이 선교했던 선교지 현황, 고인의 설교집과 관련된 저서 및 강의 교재 등 하나님 나라 확장을 소망했던 고인의 고귀한 발자취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됐다.

지난 24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진행된 개관식은 임동선 목사 7주기 추모예배와 함께 거행됐으며,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고인의 삶을 돌아봤다.

임동선 목사 7주기 추모예배 및 기념관 개관식은 월드미션대학교 남종성 교수의 사회로 고인이 설립한 동양선교교회를 담임하는 김지훈 목사가 기도했으며,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담임)가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롬 1:14-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기도한 김지훈 목사는 “한 나라에라도 더 복음을 전하시려고 100개 나라 방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진행된 임동선 목사 7주기 추모예배 및 기념관 개관식. ©기독교일보

을 평생소원으로 삼으셨던 故 임동선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 외쳤던 진리의 말씀, 뿌리셨던 생명의 씨앗들, 눈물로 쏟아부었던 간절한 기도가 신앙의 유산이 되어 계속 열매 맺게 될 줄 믿는다”며 “임 목사의 믿음의 발자취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사역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설교한 박성근 목사는 “故 임동선 목사님께서 지구촌 전체를 목장 삼아 복음 전파를 위해 온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사셨고,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그

분의 비전을 따라 세계 복음화와 복음 증구의 사명을 다하자”고 전했다.

임성진 총장은 “올해는 임동선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지 7년이 됐고, 탄생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며 “고인의 선교 열정을 되새기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기념관을 열게 됐다. 복음을 삶으로 보이시며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을 다한 고인의 열정이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월드미션대 손종우 학우가 특별 찬양으로 고인을 삶을 회고했으며, 김대성 목사, 김해룡 집사의 추모사 낭독에 이어 임성진 총장이 기념관을 소개했다. 고인의 차남, 임승

천 집사가 인사와 광고를 전했다. 추모예배는 윤성환 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고 임동선 목사는 1923년 경기도 부천 출생으로 서울신학대와 숭실대 철학과에서 공부하고 1948년 서울 아현성결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를 시작으로, 한국 공군 초대 군종감(대령)을 지내며 젊은 시절을 군복음화에 헌신하다가 퇴임 후 유학을 결심하고 미국으로 왔다.

한인 이민 선교의 선구자로 불렸던 임 목사는 1970년 47세에 ‘선교·교육·봉사’라는 3대 가치를 내걸고 동양선교교회를 사택에서 개척해, 1990년 은퇴하기까지 동양선교교회를 미주한인디아스포라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후배 사역자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OMC를 통해 40여 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했다.

1987년에는 전 세계 90여 개 교회와 기관을 지원하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World Evangelical Mission Alliance: WEMA)를 조직했으며, 1989년에는 세계 선교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월드미션대학교를 설립해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놓았다. 임동선 목사는 2016년 9월, 93세로 소천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남미 4개국 단기선교를 다녀올 정도로 선교에 온 삶을 바쳤다. 김동욱 기자

제8회 한인신학대 설교 페스티벌, ‘복음으로 돌아가자’



제8회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 설교 페스티벌이 10월 7일(토) 오후 9시에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린다. 사진은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임원 및 관계자들. © 기독교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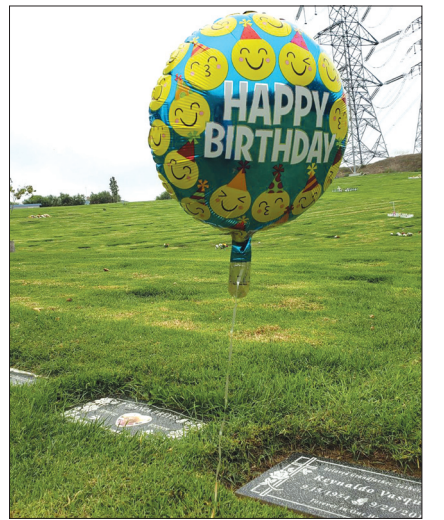
10월 7일 오전 9시, 미주평안교회서
미주성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는 제8회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 설교 페스티벌이 10월 7일(토) 오후 9시에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팬데믹으로 위축된 교회들에게 도전과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취

지로 이번 페스티벌 주제를 ‘복음으로 돌아가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남가주 지역에서 연방정부의 인가를 취득한 8개 신학대학교에서 각 대표로 참가하는 설교자들은 레터 사이즈 2-3 페이지로 설교문을 준비해 12분 정도 설교를 하고 심사를 받게 된다.

각 대학에서 지정한 교수들과 청중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당일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들에게는 설교 우수상, 모범상, 주해상, 전달상을 정해 최고 \$2,000 상당의 장학금과 상장이 주어지고, 우수한 학교에는 트로피가 증정된다. 참가한 학생들에게 \$600 장학금이 전달되고, 우수 설교자들은 미주복음방송국에서 설교를 방송할 예정이다. 성서화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건전한 설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말씀의 잔치를 펼쳐 차세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디카시인협회 | 금주의 시



흠이 되었다

흠을
기억하니 고맙구나
우리
다시 만난 날이
기다려진다
Happy Birthday
-글: 사진: 김철빈-

“중생 없이는 하나님의 뜻 따르지 못해”

프리타개혁신앙연구회(대표:이완재 목사)의 9월 정기예배 및 컨퍼런스가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최됐다.

지난 9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에 LA 한인교회(담임 홍성화 목사)에서 홍성화 목사의 사회로, 심진구 목사(미주예문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이완재 목사가 디도서 3:5 절과 요한복음 3:3절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중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가 없는데 중생과 회심은 구분해서 실생활에 응용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10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도의 신학교와 종교단체를 방문해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과 중생의 은혜를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독교에서는 회심으로 거듭나야 참다운 삶을 살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호 목사(기독뉴스 LA지사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김민선 기자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품는

다음세대 신앙계승 프로젝트 설명회 및 스마트 미디어 세미나

참가신청 마감일
9월 29일(금) 40명 선착순 마감

2023. 10. 2. (Mon) 10:00am~4:00pm
Double Tree Hilton Buena Park / Sierra 세미나실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대상
다음세대 사역에 관심있는
담임 목회자,
예배 담당 교역자

등록기간
9.11(월) - 29(금)
40명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및 문의
- nci@gm.edu
(한철주 목사)
- QR코드 접수

특전
- 점심식사 제공
- GMU기념품 증정
- 미디어 기자재 증정

참가비
무료

● 프로그램

시간	내용	상세내용
9:30 - 10:00	접수	
10:00 - 11:00	개회	프로젝트 설명회, Q&A (주제: 다음세대를 품는 예배)
11:00 - 12:00	모임	그룹 인터뷰
12:00 - 13:00	식사	
13:00 - 14:30	강연1	셀폰을 이용한 촬영법 (강사: 박봉성 PD / 전 CTS America 제작국장)
14:30 - 16:00	강연2	셀폰을 이용한 편집법 (강사: 이윤희 PD / 전 CTS PD)

그레임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LA동부장로교회 50주년, “결단하고 복음 전파 사명 붙들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위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뻐하는 교회

LA동부장로교회(김정오 목사)가 창립 50주년 감사예배를 24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이런 교회’(갈라디아서 1:6-10)란 제목으로 설교한 김정오牧사는 “동부장로교회는 50년 전에 1베드 아파트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려 한다”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무엇보다 진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고 했다. 저희는 개혁주의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기본 신앙은 오직 성경이다”고 했다.

김 목사는 “오직 성경만이 절대 권위가 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면서

서 “사람의 행위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기반이고 고백이다. 우리의 중보자가 어떤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중심으로 신앙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요즘 복음이 많이 변질되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을 받을 수 있다는 자들도 있다.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다. 전임되시는 이용규 목사님께서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기에 수고하셨다. 앞으로의 50년 동안 변질되지 않는 복음과 진리 위해 서 있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동부장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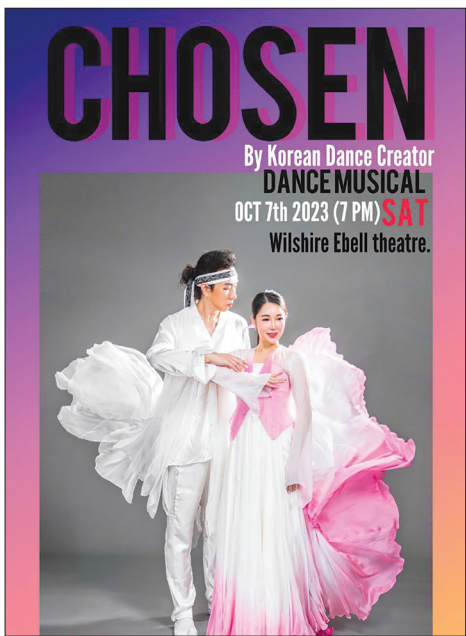
LA동부장로교회(김정오 목사)가 창립 50주년 감사예배를 9월 24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를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해야 한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김 목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선교에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다”라고 했다.

토마스 멩 기자

뮤지컬 Chosen, 국악팝과 한국무용이 만나다



LA 최초 한국무용이 K국악팝과 만나 댄스 뮤지컬로 탄생했다. 성경의 세 믿음의 여인, 나오미, 룻, 라합의 용기있는 믿음의 선택을, 한국 무용을 현대화해 연출했고, K-POP과 국악을 결합했다. 이 공연은 10월 7일(토) 오후 7시에 윌셔 이벨 극장(Wilshire Ebell Theatre)에서 개최된다. 공연의 안무는 Hyojin Jun 교수가, 연기 지도는 Hang Bang 감독이 맡았으며 라합 역에는 이은지, 나오미 역에 조윤희, 룻 역에 박지선, 보아즈 역에는 이유현 등이 출연한다.

이 공연을 주최하는 KDC Musical은 LA 현지 최고의 배우, 무용수, 가수, 영상, 사진 예술 작가로 구성된 뮤지컬 팀으로 삶의 진실이 담긴, 성경 안의 구원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티켓은 10월 7일까지 구입할 경우 36불로 할인된다. 티켓 구매는 문자(909-539-5657)와 웹사이트(www.kdcmusical.com)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주디 한 기자

좋은소식교회 이취임식 “목회는 장거리 마라톤”

좋은소식교회가 담임 목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24일 오후 4시 30분에 드렸다. 이날 이호우 목사가 이임했고, 이순애 목사가 좋은소식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이임사를 전한 이호우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하와이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몸이 아파 건강상의 이유로 퇴진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로 인도하셔서 몸을 회복시키고 좋은소식교회에서 15년 동안 목회하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어 어쩔 때는 하루 12번 이상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밤을 지새기도 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특별히 저와 바통 터치를 하는 이순애 목사에게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설교한 황천영 목사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다”라면서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은퇴하시고 취임하시는 두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고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호우 목사 은퇴식에서 축사한 목회자들은 “이 목사님은 OC교협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리고 인도교회를 세우고 좋은소식교회를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면서 “미디어 사역과 복음방송 사역, 중보기도 사역 등 지금까지 잘 감당하셨다. 이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한 이순애 목사는 “40에 부르심을 받아서 미국에 와서 유학생생활 하는 동안 고생이 많



좋은소식교회가 담임 목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24일 오후 4시 30분에 드렸다.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이순애 목사, 다섯번째가 이호우 목사. ©기독일보

았다. 좋은소식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했고,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하는 목사님과 성도들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다”라면서 “앞으로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삶으로 본을 보여준 이호우 목사님께 감사한다”고 했다.

취임식에서 축사 및 권면을 전한 목회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목회를 해나가기 바란다. 헌신적인 목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바란다”면서 “은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와 희생을 각오하고 목회하기를 바란다. 요즘 교회나 사회를 보면 이것이 잘 안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첫째로 겸손해야 하고, 둘째로 교회 화평을 위해 힘써야 하고, 셋째로 조직의 리

더로서 법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 한다. 넷째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끝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 이것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은퇴식에서 김대순 목사(가나안교회 은퇴), 우상림 목사(영원한기쁨교회), 김종대 장로(전 OC한인회 회장), 류창렬 목사(나눔동산교회), 심주섭 목사(전 좋은소식교회 협동)가 각각 축사했고 소칼 인디언 교회(So-Cal Indian Church)가 축가를 불렀다.

취임식에서는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 박종기 목사(엘피스교회 원로), 김경섭 목사(OC영락교회)가 축사했고 민준기 목사(가주장로교회 원로)가 권면했다. 캄코랄(KAM CHORALE)이 축가를 불렀다.

좋은소식교회의 2023년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이다.

토마스 멩 기자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NC

“아!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중단할 수 없는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 이루자”

2023년도 국제총회 및 세계선교대회, 은혜한인교회

“중단할 수 없는 세계 선교, 마무리 비전 이루자”라는 주제 아래, 2023년도 국제총회 및 세계선교대회가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4일간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총 60개국에 파송된 선교사 및 현지인 사역자 및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선교지의 선교 현황을 보고하고 선교 전략을 논의했다. 첫날인 19일 개회식 및 개회예배에서 국제총회장 박병섭 목사는 “흘러 떠나려 가지 마시다”(히 2: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한국교회에 나타난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교회에 나타난 변화들을 짚어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다.

그는 “팬데믹을 거치며, 전체 교회의 18.5%가 문을 닫았다”며, 이 기간을 거치며 나타난 새로운 흐름으로 팬데믹을 거치며, 등장한 개념인 ‘플로팅 크리스천(Floating christian)’을 소개했다.

“코로나 이후 플로팅 크리스천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교회 출석은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교회에 적은 두었지만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부평초 성도라고 부



2023년도 국제총회 및 세계선교대회가 개막식 ©gkctv.com

른다. 한국 교회는 무려 54% 이상이 이 부류에 속한다.” 그는 이민교회의 2세들이 대학을 가면서 80%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로 돌아오더라도 한인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며, “미국과 캐나다 한인교회는 2014년도 4천 5백 개의 한인교회가 있었다. 꼭짓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해서 약 3천 5백 개의 한인교회로 추산하고 있다”며 한인교회가 감소해 가는 현황을 전하며,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리바이벌(revival)이 아니라 서바이벌(survival)이 문제다”라는 말도 한다. 어떻게 세화에 흘러 떠나려 가지 않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에 지와 있다”며,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으로, 핍박과 박해 속에서, 크리스천들 가운데 보다 안전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흘러 떠나려 가다”에 해당하는 ‘파라위오펜’은 표류하고

흘러 떠나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서는 핍박으로 인해 옛날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 지 가르쳐 준다”고 말했다. 설교를 마치며, 그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출 작전>의 마지막 장면, 자신을 구출하다가 목숨을 잃은 밀러 대위의 묘지를 찾아가, 노인이 된 라이언 일병의 대사, ‘나 잘 살고 있는 거지?’를 언급하며,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해보길 권했다.

“<라이언 일병 구출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다. 네 형제가 모두 전쟁에 참가하게 된 라이언 집안이 있었는데 며칠의 시차를 두고 세 형제가 전사를 하게 되었다.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 프랑스 전선에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막내 아들을 구출해 집으로 돌려 보내기로 결정하고 밀러 대위와 함께 8명이 라이언 일병 구출 작전을 시작하게 된다. 결국 6명이 죽고, 라이언 일병을 집으로 보낸다. 시간이 흐르고, 밀러 대위의 묘지를 찾은, 노인이 된 라이언 일병은 아내에게 이렇게 묻는다, ‘나 잘 살고 있는 거지?’

“나 한 사람 구출해 보겠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그를 통해 구원받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 보면 좋겠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지?’ 세상 풍조에 떠내려 가지 마시고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가길 바란다.” 주디 한 기자



세계선교대회 둘째날 ©gkctv.com

세계선교대회 목회자 세미나 “목회와 선교는 환영받는 일 아니야”

“할아버지 한 분이 택시에 타셨다. 택시 기사를 할아버지에게 묻는다, 어디를 가시는데 그렇게 안전부절이세요?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에게 가. 우리 할머는 치매야, 아무 것도 몰라.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가시려고 하세요? 할머니가 몰라본다면서요... 할머는 나를 몰라도, 내가 할머를 알잖아. 할머는 무엇이 필요인지 모르지만 그 할머의 필요를 내가 알잖아.”

2023년도 국제총회 및 세계선교대회 둘째 날인 19일(화)에 유재명 목사(안산빛나교회)는 한 할아버지와 택시 기사를 대화로(가나안 정복의 영성으로)(수 3:14-17)라는 제목의 목회자 세미나의 문을 열었다.

그는 “이것이 목회이고 선교가 아닐까”라며, “목회와 선교는 필요를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설득하여 전하

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목회와 선교는 환영받는 곳에서 환영 받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육적인 것을 원하는 저들에게 영적인 것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상이 주님을 거절했던 이유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던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의 모든 필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며 육적 필요에 대조되는 영적 필요에 대해 설명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언제 아나? “영적 필요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하고 알려주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언제 아나? 예수를 믿고 나서 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언제 아나? 내가 빛을 받은 후에야 안다. 복음을 깨달은 후에야 그 은혜를 알고 고마워한다.”

그는 수 3:14-17절을 읽은 후, “선교사의 가나안은 어디인가? 가나안의 환상을 깨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며, “가나안만 가면, 가나안만 소유하면, 이런 대전제를 갖고 접근한다. 가나안은 애굽이나 광야의 고생을 끝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목회의 목표와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나안은 고생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면 안된다. 고생을 끝내는 것이 선교사 사역의 방향이라면 언젠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고생을 끝내기 위해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역의 목적을 되돌아보길 요청했다.

“우리의 사역은 고생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면 안된다. 목회는 더 거친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되면 안되는 곳, 인간의 방식이 소용 없는 곳, ‘주님 나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곳이다.” 그는 선교사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싸우며, “날마다 채찍질하며”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셉 리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이너비스의 약속

- ✓ 믿을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 제품입니다.
- ✓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시설에서 제조합니다.
- ✓ 제3자 실험실 테스트 라벨 내용과 제품 성분이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 ✓ FDA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Produced in FDA Registered Facility

구매 방법

기독교샵

전화구매: 213-434-1170
현장구매: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p>1 물 없이 씹어먹는 애플 사이드 비네거</p> <p>60 츠어블 타블렛 \$13.99</p> <p>애플 사이드 식초와 유산균 및 여러 종류의 비타민으로 구성되어, 체중 감량, 해독, 콜레스테롤 저하, 소화 불량, 예민, 에너지 증진, 신진대사 촉진 등에 탁월합니다.</p>	<p>2 물 없이 씹어먹는 간 회복제</p> <p>60 캔디 타블렛 \$16.99</p> <p>간 건강에 가장 좋은 조항인 밀크슬과 강황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모링가 및 다양한 비타민들로 구성되어 간 건강, 소화력, 독소 제거, 숙취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p>	<p>3 에너지 & 무드</p> <p>60 캡슐 \$9.00</p> <p>에너지와 건강한 기분을 도와주는 다섯 가지 핵심 원료인 마그네슘, 비타민 C, 마카, 아슈와간다, 무라 무라로 만들어졌으며,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p>
<p>4 목 넘김이 쉬운 비오틴 5,000mg</p> <p>120 베지터블 캡슐 \$9.99</p> <p>탈모 예방과 피부질한 개선 및 손톱을 탄탄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를 생성합니다.</p>	<p>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p> <p>120 베지터블 캡슐 \$8.80</p> <p>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D3 햇빛을 받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 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p>	<p>6 비타민 C500</p> <p>180 베지터블 캡슐 \$11.99</p> <p>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 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p>
<p>7 물 없이 씹어먹는 비타민 C 츠어블 500mg</p> <p>120 츠어블 타블렛 \$14.75</p> <p>쉽고 빠르게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B2, B6가 함께 들어있어 육체 피로와 면역력을 개선해 주며, 기미와 주근깨 예방에 좋습니다.</p>	<p>8 엠에스엠 2,000mg</p> <p>150 타블렛 \$10.99</p> <p>활력있는 생활로 돌아가세요! MSM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 회복, 피부 노화 방지, 상처 치유 촉진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p>	<p>9 면역력</p> <p>120 타블렛 \$11.99</p> <p>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 기반부터 끌어올려 줍니다.</p>
<p>10 간 건강 피로 회복제</p> <p>120 베지터블 캡슐 \$19.99</p> <p>한국 식이제 건강기능식품 기준함량의 살리마린(밀크슬)을 포함하였으며, 검증된 비타민, 마네롤로 제조하여, 간 건강뿐만 아니라 피로까지 회복시켜 주는 탁월한 제품입니다.</p>	<p>11 프리미엄 혈액순환</p> <p>150 캡슐 \$19.99</p> <p>검증된 다양한 비타민, 아연, 니아신, L-아르기닌, L-시트룰린, 마늘, 인삼, 허브 등 혈액순환에 좋은 고급 원재료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p>	<p>12 타우린 500 플러스</p> <p>180 캡슐 \$14.99</p> <p>신경세포와 신경계를 보호하고 진정시켜 심장, 두뇌 등을 건강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C와 작용하여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다. 한 병으로 6개월간 복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p>
		<p>13 피쉬 오일</p> <p>120 소프트겔 \$13.75</p> <p>높은 품질의 피쉬 오일을 사용하였으며, 다량 함유된 오메가3는 심장과 심혈관, 눈의 광역의 중요 요소로 사용됩니다. 또한 만성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p>



이너비스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건강보조식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최신 기술과 최첨단 제조 장비를 이용하여, 엄격하게 제조된 우수한 제품을 통해, 인류사이에 건강과 웰빙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믿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No.1 시니어전문의료네트워크



풍요롭고 건강한
한가위 되세요

추석을 맞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밝고 환한 웃음 가득한
건강한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 센터메디컬그룹

“아브라함, 이삭, 손양원의 하나님... 너도 그렇게 살아라”

손양원 목사의 양손자 안경선 목사 삼부자 무덤서 손양원 목사 음성 듣고 부룬디 한센인 섬겨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부룬디에서 한센인들을 돕고 있는 안경선 목사가 최근 LA에 방문했다. 요즘 듣거나 접하기도 어려운 한센병이라는 단어. 그 병에 걸린 이들에게 산간 오지로 자처해서 찾아가 섬기는 그는 손양원 목사의 뜻을 이어받아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안경선 목사를 만나보았다.

-이번 LA에 방문하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룬디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 애양원 교회에서 부룬디 선교사로 파송 받게 되었어요. 애양교회에서 중등고등학교 신우회 모임의 지원으로 저를 아프리카 부룬디 한센인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파송을 받기 전에 25년 동안 일반목회를 하다가 2016년 1월에 '손양원기념관' 초대 관장으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뜬금없이 '신학대에 가라'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부산에서 전도사 생활도 하셨었는데, 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핍박을 많이 받게 되면서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48세에 순교를 하셨고, 아버지도 48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 생전에 손 목사님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물어본 바가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뜬금없이 저에게 신학교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에 손 목사님 가족들이 찾아오셔서 안용준 목사님이 쓴 '사랑의 원자탄' 책을 주고 가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정신이 나서 책을 보니까 여수 사건이 나오고 아버지가 가해자로 나오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만나, '네가 나를 죽였다'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다니고 저도 같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나서 제가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두 아들을 죽인 자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절망 속에서 방황하다가 폐에 문제가 생겨해 많은 병치레를 하는 중에 2년 동안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때 살기 싫고 죽고 싶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눈을 뜨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10시간이 넘는 폐 절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를 똑똑 흘리면서, '네 아버지는 동인, 동선을 죽였지만, 너는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깊은 상처에서 치유를 얻고 아버지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목회를 하면서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저를 커밍아웃시켰다고 이야기합

니다. 8.15 특집으로 손양원 목사님과 아버지 관련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애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손 목사님이 양아들로 삼았던 재선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 애양원에서 소개해주기 바란다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2010년 9월에 처음으로 애양원에 가서 설교하고 그 앞에 있는 삼부자 무덤으로 갔어요. 거기서 목상하고 있는데 손 목사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가 재선이 아들이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 찾아오게 된 것을 안다. 너를 환영한다." 삼촌들도 "나도 너를 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이름으로 위로한다는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속지 말고 잊혀져가는 사랑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이후부터 교회에서 간증도 시작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손양원 목사님 생가와 기념관이 완공돼서 제가 초대 관장으로 4년 동안 일하게 되었어요.

2020년에 '손사랑 브릿지' NGO 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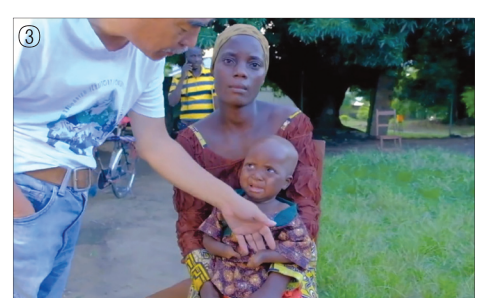
초대 관장으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도전을 주셨어요. 애양원에서 헌신하셨던 윌슨, 손양원 목사님은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한센인들과 평생 울고 웃으면서 살아왔는데,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윌슨, 손 목사님의 하나님인데 너도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거라'는 음성이 들려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2020년에 손 목사님 순교 70주년에 외교부에 법인설립을 하고 '손사랑 브릿지'라는 NGO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부룬디에서의 한센인 선교 사역을 소개하신다면.

우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결되어서 1년 6개월간 리서치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룬디에 500명의 한센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에게 식량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미국인들이 헌금해 주어서 병원과 학교를 짓고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가 빛진 것을 갚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십시일반으로 후원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한센인들을 돕겠다고 답했어요. 이 말을 보건복지부에서 듣고 우리 단체에 한센인 지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됩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요. 약을 먹으면 병이 더 이상 진행이 안돼요. 한국에서는 완치가 되었고, 현재 전 세계에 적도 부근에 한센인이 4천만명 정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둥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 병은 얻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외도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하고 낯선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룬디에 한센인들이 너무 방



① 안경선 목사. ② 부룬디 KIBAGO에서 한센병 환자의 발을 치료해 주고 있다. ③ 손사랑 브릿지에서는 한센인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④ 부룬디 마캄바(MAKAMBA) 주에서의 모임. ⑤ 안경선 목사는 부룬디에 학교에 영어 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하게 흠어져 있어서 심방을 해도 하루 10 가정밖에 하지 못해요.

부룬디에 UN 산하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 수많은 NGO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한센인에게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땅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있나요.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주고 봉대를 감아주고 있습니다. 쌀 10kg, 콩 10kg, 팥팻비누, 소금 등 생활의 기초적인 필수품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고 간단히 복음은 전해요. 그들에게 한 달에 필요한 생활용품이 40볼 정도입니다.

사역이 좀 더 성장이 이뤄지면 교육사업에 집중해서 학교나 도서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한센인이 자립하게 되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선교센터를 세우면 그 밑에 기숙사를 세우고, 땅을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다든지 빵공장, 우유공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취업할 수 있고 한센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 할 수 있어요. 부룬디라는 나라를 보면 최빈국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면 학생들은 노트에 적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미국에 뜻있는 분들이나 교회가 영어책을 보내서 교육사업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들과 1:1로 제자 양육을 해도 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사랑에 목마른 한센인들.

그곳의 한센인들은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 접촉이 안 되죠.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외국 사람이 찾아와서 치료해주고 식량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기다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갑죠.

우리 NGO 단체가 커져서 부룬디의 한센인들을 더 섬겼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중앙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주 지역의 교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드는 것이 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큰데 땅 끝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에 많은 교회들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마스 멩 기자 문의: 02-711-9413, 010 3115-9413 후원계좌: 우리 1005 104 010203 사단법인 손사랑브릿지.

2024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 모집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4년에도 다음과 같이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수여대상**
 - 밀알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 꿈나무장학생: 00명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 근로복지생: 0명 (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 제출서류**
 -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 기존 장학생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서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홈페이지 (www.milalsc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2명의 장애인 장학생들에게 \$128,000의 밀알장학복지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23년도까지 지급된 누적 총 금액은 \$2,876,200입니다.

- 1. 밀알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2. 꿈나무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사랑의교실 주임교사)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3. 근로복지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장학금액**
 - 밀알장학생 & 근로복지생: 1인당 \$3,600.00 (매달 \$300 지급)
 - 꿈나무장학생: 1인당 \$1,000.00 (일시 지급)
 - 신청마감**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함 (Email 접수 가능)
 - 발표**

2023년 12월 29일(금) 개별통보함
 - 수여식**

2024년 1월 15일(월)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오디오 성경

“단 30분의 녹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전교인 성경통독 가능



60DAY 신약통독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와 함께 60일 신약듣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호응 속에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일 성경통독
선한목자교회



90일 성경통독
온누리교회



100일 신약통독
중앙성결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지구촌교회

AI 오디오 성경 특별 프로모션

프리미엄 패키지 : 교회(담임목사)

~~\$6,600~~ ▶ **\$5,500**

- 오디오 성경 음원(wav,mp3), 고급 USB 패키지
- 바이블리 앱 업로드 \$교인 무료 이용
- 교회 맞춤형 바이블리 통독 서비스(음원편집 & 배너광고)
 - 성경 66권 기준(권당 \$83)
 - 출석 교인 **300명 이하 : \$3,500(권당 약 \$53)**

*** 담임목사 + 원로목사 패키지**
- \$5,000 (담임목회자) + \$3,000 (원로목회자)
- 교인의 데이터로 제작 시 별도 논의 필요

베이직 : 개인(일반성도 및 부목회자)

~~\$3,300~~ ▶ **\$2,500**

단 한번의 녹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가족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 오디오 성경 음원(wav, mp3) 제공
 - 바이블리 앱 개인 성경 업로드(향후 예정)
 - 성경 66권 기준 권당(약 \$35)

개인 오디오 성경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기독일보

www.chdaily.com
T:(213)739-0403 chdailya@gmail.com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제사대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아) 오전 6시
3부예배(제사대예배) 오전 11:30 (토-일) - 헌정성경예배
대학원남부(BM) 오후 2:00 수요일(보)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den 고대)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아름다운(AMN)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3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교와 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위치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아름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전 5:30 (월-토)
중보기도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막)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막)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909)396-4441 www.igmc.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818) 366-0089 / www.kumc.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침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허가 받고도 15년 넘게 교회 건축 못해...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박해



©Fahmi Anwar/ Unsplash.com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인들은 직장에서의 어려움, 여성들에 대한 폭력적이고 의무적인 이슬람 복장 규정 강요, 교회 건축 허가의 어려움, 괴롭힘, 차별,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는 이슬람 이외의 종교가 전역에 널리 퍼져 있으나, 타종교 신자들은 박해받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 정부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기독교인 바니아(가명)도 “여러 형태의 명백하고 미묘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자신이 해당 관공서에서 일하는 유일한 기독교인임을 알게 됐다. 특히 허락을 쓰지 않는 그녀는 쉽게 눈에 띄었다. 그녀의 무슬림 동료 중 일부는 직장에서 그녀를 피하고, 그녀는 필수적인 정부 신분증을 얻기 위한 간단한 절차에 수 개월이 걸렸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2021년 보고서에는 소녀와 여성들에게 질밥(jilbab)을 입도록 강요하는 광범위한 괴롭힘이 야기할 수 있는 깊은 심리적 고통이 기록돼 있다. 20개가 넘는 지역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소녀들은 압력을 받아 학교를 떠나야 했고, 교사, 의사, 교장, 대학 강사를 포함한 일부 여성 공무원은 직장에서 해임되거나 사임을 강요당했다.

집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IMB(Izin Mendi-

rikan Bangunan)라는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교회 건축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 허가 요건을 늘렸다. 교회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인으로부터 90명의 승인 서명을, 다른 종교를 믿는 이웃으로부터 6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교회의 경우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기도 어렵다. 모든 조건을 갖추고 서명을 받아도 저항 없이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자카르타 교외 보고르에 있는 GKI야스민교회는 지난 15년 동안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싸워 왔다. 지역 극단주의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공사를 방해하자, 시장은 이미 발급된 허가를 취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매주 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하기 위해 호텔을 임대하거나 숙소를 위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호텔 직원의 모습, 방음벽, 이른 영업 시간, 두꺼운 커튼이 설치된 창문 등은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예배를 드리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보여 준다.

또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의 교회 습격은 교회에 관용적이지 않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 단체들은 지역 당국과 협력해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그들의 모임을 “불법”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교회 확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 나라의 복음주의 교회는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파송되는 선교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2.8%의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캐나다 학부모들, “동성애 교육 반대” 대대적 시위

우리는 정부와 ‘공동 부모’ 아냐”

지난 20일 캐나다 전역의 도시에서 수천 명의 부모들이 공립학교의 성소수자(LGBTQ) 세뇌와 성적 대상화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어린이를 위한 100만 행진’에 동참했다.

캐네디언프레스(Canadian Press)에 따르면, 행진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학교 위원회가 아이들을 ‘성 이데올로기’에 노출시켰다”며 “학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은 “아이들에게 LGBTQ+ 포용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며 “이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미국의 문화 전쟁을 캐나다에 수입해 왔다”고 비난했다. CBC뉴스에 따르면, 토론토 퀸스파크에서는 수천 명의 양측 시위대가 대치했다. 한 시위자는 “아이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기 위해 공원에 왔다”며 학교의 성별 커리큘럼과 연령에 부적합한 도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나단 맥밀란(Nathan McMillan)은 C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많은 정치적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실제로 일어나는 중요한 대화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와 기관, 노조, 큰 재단 등은 아이들과 이러한 유형의 대화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루브나 알라레스는 “우리는 소수자를 반대하는 소수자가 아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위한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소수자 공동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인 오타와에서는 수천 명의 학부모와 자녀들이 행진에 참여했다. ‘자유를 위한 엄마들’(Moms for Liberty)은 행진 참가 장면을 담은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단체는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들을 내버려 두라”는, 캐나다와 미국 전역의 부모들이 외치는 구호다. 우리는 정부와 공동의 부모가 아니다. 또 어린이들의 ‘조기 성적 대상화’와 잠재적으로 해로운 수 있는 ‘세뇌’에 항의하는 것이지, 성소수자들에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더포스트밀레니얼(The Post Millennial)에 따르면, 이번 행사 주최자인 카멜 엘-체이크는 ‘가족 및 어린이 해방의 날’로 알려진 지난 9월 20일 의회 잔디밭에 모인 군중에게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 오늘은 가족과 어린이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녀는 “우리는 가차 없이 행동할 것이고,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빅토리아, 에드먼턴, 몬트리올, 오타와에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자녀와 부모의 권리를 옹호할 것이다. 기억하라. 우리는 강력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을 영광스럽고 자유롭게 지키신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진의 목적은 ‘캐나다의 아름다움’을 축하하는 것”이라며 “캐나다인들이 해안에서 해안까지 유기적으로 시위를 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다시 하나로 모을 것이다.

캐나다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국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에 관한 글을 올리고, 부모들의 항의를 ‘혐오’라고 표현했다. 강혜진 기자

미 공화 의원, 낙태 반대 시위 겨냥한 'FACE법' 폐지안 발의

미국 공화당의 집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이 주로 낙태 시술소 주변에서 낙태 반대 시위자들을 기소하는데 사용된 연방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9일 로이 의원은 '진료소 출입 자유법'(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Act, 이하 FACE)을 철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상원에서는 마이클 리 상원의원(공화당·유타)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로이 의원은 성명에서 "1990년대 중반에 제정된 FACE 법이 바이트 행정부에 의해 낙태 반대 시위를 평화적으로 하는 친생명(pro-life) 운동가들을 겨냥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낙태 시술소나 생식 건강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성명에서 "바이트 법무부는 생명을 옹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성향을 넘어, 일상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FACE 법을 무기화했다"며 "헌법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력을 분리한 이유가 있으며, 이 보호 장치를 무시하면 위협에 빠질 수 있다. FACE 법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경찰 권한을 위협적으로 강탈할 것이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118대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프로라이프 코커스(Pro-Life Caucus)의 공동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은 FACE 법이 "(태아) 생명을 옹호하는 개인이 비폭력적 시민 불복종 행위에 가담할 경우 가혹하고 비열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는 인권과 시민권 운동의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FACE 법에 따르면, 피켓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목주기도를 하는 등의 평화로운 행동마저 낙태 시

설 인근에서 행할 시, 불쾌감을 느끼는 당사자에 의해 징역형, 막대한 벌금 및 징벌적 손해 배상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낙태 찬성 운동가들이 저지른 80건이 넘는 폭력 공격, 화염병 투척 및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한 체포 사례는 기록된 바가 없다"며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산모와 낡아 태아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일선 자원봉사자 및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들을 위협하기 위해 연계된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FACE 법은 낙태 클리닉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 의회에서 통과되어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반면, 전국낙태연맹(National Abortion Federation, NAF)과 같은 단체들은 FACE 법이 낙태 지원 시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낙태 반대 운동가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한다고 반박했다.

NAF는 성명서에서 "FACE는 시위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보호한다"며 "낙태 클리닉 외부에서 평화로운 시위, 찬송가 부르기, 기도, 피켓 시위, 피켓 라인 걷기, 클리닉 밖에서 낙태 반대 자료 배포를 포함한 평화적인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FACE 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낙태 반대 운동가인 조나단 다널, 진 마셜, 조안 벨은 2020년 10월 워싱턴 D.C에 있는 낙태 클리닉 입구를 봉쇄하려고 시도했다가 FACE 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바이트 법무부는 FACE 법을 사용해 필라델피아의 한 낙태 클리닉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낙태 클리닉 자원봉사자와 충돌한 혐의로 가톨릭 활동가 마크 후를 체포한 뒤 기소했다. 이는 연방 하원의원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후크는 지난 1월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유진 기자

IS, 모잠비크 카보델가도주서 기독교인 11명 학살



모잠비크 카보델가도 주의 한 마을 주변에 모잠비크 방위군(FADM) 부대가 보초를 서고 있다. ©africanews 유튜브 캡처

이달 초, 북부 모잠비크에서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극단주의 세력이 최소 11명의 기독교 신자를 학살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국제 구호단체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가 이 지역 선교사인 보야벤투라 수도사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이번 학살은 카보델가도 주의 모심보아 다 프리아 인근의 나키텐게 마을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은 2017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

테러범들은 지난 22일 이른 오후에 마을에 도착해 주민들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이름과 민족에 따라 기독교 신자와 이슬람 신자를 분리한 뒤,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총격을 가했으며, 더 많은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장 세력은 성명을 통해 IS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들이 "11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보야벤투라 수도사는 "이들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총격을 퍼부었다. 이는 IS에 충성을 맹세한 지역 테러 단체에 의한 공격"이라며 "실제 희생자 수는 더 많을 수 있으며, 심각한 부상자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와 이슬람 신자를 분리한 다음 전자를 공격하는

방식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로 돌아오기 시작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격이 긴장과 불안을 증폭시켰다"고 덧붙였다.

펄마 교구의 아파레시다 라로스 케이로스 수녀는 ACN에 "이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기도만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카보델가도 주와 인근의 니아사 주에서는 테러 공격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약 1백만 명의 국내 이재민이 발생했다. 펄마 교구의 안토니오 줄리아세 주교에 따르면, 그중 약 5천 명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줄리아세 주교는 최근 성명을 통해 기독교 신자들에게 "카보델가도 주를 잊지 말아 달라"며 "연대가 즉각적인 도움을 열어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모잠비크에서 이슬람 지하드주의자들이 납치한 기독교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시킨 뒤, 성노예로 삼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데니스 헐리 평화 연구소(Denis Hurley Peace Institute) 소장 요한 빌요엔은 가톨릭 매체인 '내셔널 가톨릭 레지스터'에 "사람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 이는 인권을 모독하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유진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암송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OC재동: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암송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오전 6:00, 15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5887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이항영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중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고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경암송회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9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매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P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아(한정)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수요일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임혁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장년예배 오후 9:00(목), 청년예배 오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반인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아(한정) 오후 1:00, K9대학원부 오후 2: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안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소망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11:15, 주일 오전 11:00am, 수요일예배 화-금 5:30am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6.25 전쟁과 북한 교회

6.25전쟁이 발발한 지 4개월 만인 10월 하순에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마침내 수복하였다. 그동안 공산 치하에 있었던 이북 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다시 신앙의 자유를 되찾게 되어 다시 제2의 해방을 맞이한 것 같은 감격을 맞이했다. 약 5년의 공산 치하에서 김일성의 통치에 지지와 협조하지 않는 교회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철저히 공산 정권하에서 연명 하듯 교회를 유지해 왔던 교회들이 유엔군이 이북 지역을 점령하자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평양이 수복되자 가장 먼저 그곳에 도착한 선교사들중에는 지난날 평양의 첫 선교사 사무엘 오스틴 마펏(Samuel Austin Moffett, 1864-1939)의 아들 하워드 마펏 선교사(전쟁 후에 장신대 교수, 프린스턴 신학대 교수 역임)였다. 그다음 날에는 평양에서 선교 활동하였던 다른 선교사들(Edward Adams, Hary Hill, Arch Campello, Kinlser 등)과 평양에서 목회하였다가 공산화로 인해 남으로 왔던 목사들인 이민식, 김양선, 유호준 등이 도착하였다.

며칠 후에는 장로교회 교단 총회 임원과 이북 성도 대표회 임원들이 철도를 따라 황해도 각 교회를 시찰하며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 가운데서 군복을 입고 평양에 도착한 황은근 목사(동평양교회, 평양신학교 32기)가 가장 돋보였다. 그는 평양시청 광장에서 이승만 대통령 환영 시민대회를 열어 그 단상에서 공산주의 비판에 기음을 도했는데, 그의 탁월한 웅변에 군중들은 매료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모란봉 극장에서 공산주의 비판 이론가로 명성을 떨쳤다.

평양 시내 모든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 전쟁을 전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희생되었기에 교회를 맡을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했다.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청소년면려회를 조직했고, YMCA 재건, 평양연합찬양대의 조직, 신학교 개교, 영어 성경 강습소 개강 등 기독교 기관들을 재건하였다. 그동안 억눌렸던 교회 활동이 한꺼번에 분출되었다. 평양은 빠른 속도로 공산화되기 전의 모습으로 활기를 되찾아 갔다. 감리교 측에서는 박대선, 김음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옥, 한승호 목사가 그동안 굳게 닫혔던 학교의 문을 다시 열었다. 남산현에 있는 감리교 소속 광성고등학교, 성화신학교, 요한학교 등을 개교하고자 했다. 순식간에 청년들 500여 명이 영어를 배우겠다고 몰려들었다. 감리교 성화신학교 선생들은 열정과 정성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다. 이는 제2의 해방과도 같은 사회 분위기로 고조되었다.

한편 평양의 장로교회는 10월 29일(주일) 오후 2시 '서문밖교회'에서 대중 집회를 열었다. 일찍부터 너무 많은 교인들이 모여 들어 예배당 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많은 교인들은 창문을 통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김영준 목사가 예배를 인도했고 신의주 제일교회를 담임했던 한경직 목사가 구약 이사야서 60장 1절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이어서 온 회중이 다 함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찬송했다.

광고 시간에는 미군 군복이 보켈(Voelker)목사가 지프차에 성경을 한가득 싣고 왔으니 필요한 사람들은 구입하도록 알렸는데, 회중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지금까지 성경을 구입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평양을 탈환하고 나서 평양의 교회는 참 자유가 왔다는 기쁨 속에서 지냈다. 이들은 교회 재건과 부흥 운동을 추진했다. 기독교인들은 국군과 유엔군이 조만간에 이북 전역을 공산당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11월 초순에는 서울 종로 양재순 장로 집에서 교회 지도자 약 60여 명이 모여 이북 교회의 재건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금부터 당장 재건 부흥 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헌금을 작성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의 하나이다. 서머나는 지금의 튀르키예(Turkiye) 이즈미르로, 튀르키예 지역 성지순례 여행의 필수 코스다. 이즈미르에는 서머나 교회의 예배당이 남아서 역사를 보여준다.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이다. 이 서머나(이즈미르)는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이 도시에는 오래전부터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로 유명한 헬라의 시인 호머가 서머나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폴리갑은 본래 안디옥 출신 노예였다고 한다. 구전에 의하면 서머나의 어느 과부가 노예로 폴리갑을 샀는데, 너무 똑똑해서 그녀가 죽게 될 즈음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다고 한다. 그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 지도자로 성장하였고, 2세기 초의 교회 지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폴리갑은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한 후 약 50년이 지난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사형당하여 순교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사색을 담은 명상록으로 유명하다. 그는 전쟁 중에도 빠지지 않고 명상록을 남기고 인정한 왕으로 알려졌지만, 말년에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폭군으로 변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초기에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정한 왕이었지만 미신을 믿는 점성가들에 빠지면서 폭군이 되었다.

폴리갑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편지로 폴리갑의 삶과 사역을 짐작할 수 있다. 폴리갑 생애의 후기에 관하여는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네우스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AD 202년에 참수형으로 순교했던 이레네우스는 서머나 출신으로 폴리갑 감독의 지도로 성장한 초대 교회 지도자다. 이레네우스는 '폴리갑은 사도들의 제자이며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레네우스가 로마의 장로 플로니누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복된 폴리갑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감독이 앉았던 자리와 가르쳤던 자리, 드나들던 장소, 그의 모든 행동과 외모, 사람들 앞에서 행한 설교를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가 요한과 주님을 본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그들의 말을 어떻게 인용하였으며, 주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관하여 그들에게서 무엇을 들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폴리갑은 '로고스'의 삶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전해 들었듯이, 성서와 일치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레네우스는 폴리갑이 많은 권고와 훈계의 서신들을 교회들과 개인들에게 썼다고 전하지만 이를 예증하는 유일한 서신은 '폴리갑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남아 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폴리갑의 편지는 유세비우스도 언급한다. 보존이나 편집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폴리갑 감독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존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폴리갑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보낸 편지다. 현재 남아 있는 편지는 합본이다. 폴리갑 사후에 편지의 보존을 위해서 누군가가 합본한 것이거나 혹은 우발적으로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해지는 폴리갑의 편지는 14장 35절로 구성되어 있다. 13장과 14장은 첫 편지 일부로 알려져 있다. 폴리갑의 첫 편지는 이그나티우스의 사망 전에 기록된 편지로 이그나티우스 편지와 함께 보내진 것으로 추정한다. "여러분이 요청한 대로, 우리는 이그나티우스가 우리에게 보낸 서신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에 의해서 쓰인 다른 서신들을 여러분에게 보내 드립니다. 이 서신에 그것들을 동봉합니다(폴 빌13:2 상)." 반면에 1장부터 12장은 빌립보 교회가 겪는 위기를 보면서 기록한 편지로 보인다. 이 편지에 위기를 겪

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폴리갑의 처방들이다.

이 편지는 "폴리갑과 그와 함께 있는 장로들이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비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해 가기를 기도드립니다."라고 시작하고 있다. 이미 서두를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편지는 사도바울의 서신들과 논조가 아주 유사하다.

폴리갑의 편지는 읽자마자 익숙한 표현과 익숙한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특별히 복음서의 가르침과 바울 서신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사도바울의 용어와 표현법 그리고 사도바울의 메시지와 유사한 가르침들이 눈에 들어온다. 아울러 복음서와 유사한 표현들(6회), 빌립보서와 유사한 표현들(7회) 그리고 기타 바울 서신과 유사한 표현들이 현저하게 많다. 바울의 어투, 단어, 인사 방식 그리고 메시지가 유사하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폴리갑의 서신은 짧지만, 이 짧은 서신에서 폴리갑의 사람 됨됨이가 잘 드러나고 있다. 폴리갑은 단순했고, 겸손했고 솔직했다. 어떤 교활함도 허세도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폴리갑의 존재를 잘 나타내 준다. 폴리갑은 노예 출신이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그가 남긴 편지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서신은 단순하고 독자적 표현도 없고, 수사학적인 표현도 없는 평범한 문체로 구성되어 있다.

폴리갑은 당시 유통되는 기독교 문서들을 많이 읽고, 그 문서들을 자신의 편지에 인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비교적 신약성경 복음서와 서신서들에 정통했던 것 같다. 곳곳에서 복음서 내용이 인용되고 서신서들의 표현이 담겨 있다. 폴리갑은 이 편지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강조한다. 바울이 쓴 빌립보서와 공통된 부분만 정리해 본다. 첫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권한다. 둘째로 그리스도가 분을 보여주셨음을 강조했다. 셋째는 성도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표현한 부분이다. 이런 표현들은 바울의 빌립보서와 폴리갑의 빌립보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이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BHE, ATS, ABHE, ATS, ABHE, ATS
기독교대학(A.A.) 목회학박사(M.Div.) 상담학박사, 선교학박사, EdS,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동 발행
만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Midwestern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1-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ABHE, ATS, ABHE, ATS, ABHE, ATS
온라인 수업, CANVAS 기반 온라인 수업, 실시간 화상 수업,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수업,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학자금 지원 (Col & Pell Grants)
학부 | 신학, 사역목사학, 상담학, 목회학, 교육학,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석사, 상담학, 목회학 석사, 상담학 석사,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상담학 석사, 목회학 석사, 상담학 석사, 목회학 석사, 상담학 석사
주소: 15605 Carner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입학문의: (62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TS, ABHE, ATS, ABHE, ATS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TS, ABHE, ATS, ABHE, ATS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112/admin.kor@itsia.edu

제 2 회 WE BRIDGE CONFERENCE

작은교회를 위한 전도와 목양 컨퍼런스

남가주의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체험했던 많은 은혜들과 사연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We Bridge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귀한 말씀으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컨퍼런스 신청은
구글폼을 작성해
주시기바랍니다.



SCAN ME!

MAIN SPEAKER



저녁 연합집회 설교
김영길 목사 (TMF 대표)
(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개회 예배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담임



폐회 예배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담임

SEMINAR SPEAKERS & PRAISE



"성경 중심 소그룹목회"
유경재 목사
나성북부교회 담임
총신 신학대학원 M.DIV.



"말씀에 능력을 붙여넣는 내러티브 설교"
김귀보 목사
달라스 크나목교회 담임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전도는 기쁨이다"
유성국 목사
GOSPEL TO ALL 전도센터
부에나파크 뉴라이프 선교교회(96~16)



"공립학교의 현실 & 시대적 사명"
유수연 사모
CA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장
GATEWAY ACADEMY 대표



"신천지 강의"
김형철 목사
생명의 바람교회 담임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장



"비전 멘토링을 통한 전도와 양육"
살롬김 박사
비전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
플라신학대학원 Ph.D



집회 예배 찬양
원하트 미니스트리

날짜 : 2023년 11월 6일(월) ~ 8일(수)

장소 : 감사한인교회 69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등록마감일: 2023년 10월 20일(금)까지 선착순 마감(등록비 없음)

☎ 213.739.0403 ✉ webbridgeinfo@gmail.com

기획 : Oneheart Ministry 주관 : 기독일보, ING 후원 : We Bridge 후원 교회, 감사한인교회, 달라스 크나목교회



강준민 칼럼

책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저는 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을 통해 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책을 존귀히 여깁니다. 때로는 책을 인격체로 대합니다. 그렇다고 책을 우상화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시인은 모든 것을 인격체로 대합니다. 시인은 풀꽃과 대화하고, 나무와 대화하고, 이슬과 대화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풍랑을 살아 있는 인격체로 대하신 것입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책을 존중하면 책이 저를 존중해 줍니다. 제가 책을 향해 마음을 열면 책이 저를 향해 마음을 엽니다. 제가 책을 존귀히 여기면

책은 제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해 줍니다. 제게 필요한 지식, 지혜, 놀라운 통찰력, 깨달음,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선물해 줍니다.

책은 열립니다. 책을 열면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세계가 열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립니다. 책을 많이 소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책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을 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읽는 것입니다. 책을 열어 읽는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을 우리가 읽는 순간 우리 인생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여는 순간 우리 인생이 새롭게 열립니다.

책은 눈뜸입니다. 책을 읽으면 보게 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읽는 것을 초월합니다. 책을 읽는 순간 우리 생각의 눈이 열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보게 됩니다. 눈뜸은 놀랍습니다. 놀랍은 경탄하는 것입니다. 경탄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교한 솜씨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책은 만남입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란 누구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배우

게 됩니다. 인간이 곧 인생입니다. 인간을 알고 인생을 알면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이해하기보다 오해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고, 그 다음을 틀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포용력이 향상됩니다. 마음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책을 쓴 저자와 만나 대화하게 됩니다. 또한 책 속에서 저자가 소개해 주는 좋은 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만남이 좋은 만남을 낳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좋은 책들을 만나는 복을 누리 왔습니다. 책은 자극입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자극을 받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자극을 받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 자극을 받습니다. 더 성숙하고 원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 자극을 받습니다. 더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덤에는 자극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에는 자극이 없습니다. 아무 자극 없이 살아간다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살아 있는 것은 자극을 받습니다. 살아 있는 것은 변화합니다. 성장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책은 배움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배우니

다. 배우는 것은 변화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책을 읽다가 가슴에 품겨 된 글이 있습니다. "학력이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저는 한때 학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늘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책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늘 가까이하며 삽니다. 제 소박한 삶의 목표는 평생학습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책은 기회입니다. 저는 책을 통해 기회를 알아보고, 기회를 포착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스승으로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제를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을 통해 성경적 행동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 중의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책을 읽고 배운 것들을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하고, 책을 읽는 중에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구봉주 칼럼

신들러 리스트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1994년, 대학교 시절에 ET, 인디애나 존스의 수많은 유명한 작품들을 연출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제작합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독일 나치가 세계 대전을 일으킨 시절입니다. 아시아시피,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아우슈비치 수용소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독일 나치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신들

러라는 실존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독일 나치의 잔혹성에 회의감을 느껴, 자신의 재산을 들여, 유대인들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빼낸 명단이 9개나 될 정도로 그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 통나 더이상 유대인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재산인 반지와 자동차를 가리키며, "저것들까지 팔았다면, 몇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텐데"라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신들러의 선행으로 인해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의 무덤 앞에 모여 추모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행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관점에서 영혼 구원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주에 잠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한인

교회는 터키 땅에 나와 있는 아프카니스탄, 이란, 무슬림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2023년에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원하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께서 세우신 RZM 사역이 희소한 난민들을 미국, 캐나다, 혹은 유럽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터키 땅의 무슬림 난민들은 터키 땅에서 천대받으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터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상 그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을 해도 약탈 업주가 몇 달치 월급을 떼어먹기 일수입니다. 그 월급도 터키 현지인에 비해 60-70프로 수준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여성은 일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자녀는 공립학교를 갈 수는 있는데, 가도 차별당하기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키는 같은 무슬림이라 난민들을 500만명 가까이 받긴 했지만, 감당이 어려워, 대거 추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눈

치가 보여,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지만, 조금만 허가된 지역을 벗어나면, 봐주는 것 없이 추방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의 희망은 U.N. 난민 신청을 통해, 유럽이나 북미로 가서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그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아프카니스탄 난민들을 필두로 난민을 돕겠다고 밝혔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 5명 이상이 그룹을 지어, 신청서를 내고, 난민 한 사람 당 2370불을 내면, 미국으로 이주하여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RZM 선교단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이 일을 감사한인교회가 함께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해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감사한인교회가 예수님을 믿게 된 몇 난민 가정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o COLLISION CENTER 213.383.123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문의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볼리비아 이소소 성전헌당예배를 다녀와서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5년 만에 갔다 온 참 먼 여행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저녁 9시가 조금 넘어 선교팀을 보내는 귀한 분들의 합심기도와 환송을 받으며 교회를 출발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새벽 2시 출발 비행기로 파나마 현지 시간 오전 10시 30분경에 도착하여 잠시 공항 밖으로 나가 미주성시화 파나마지역 공동대표 위촉패와 선교비를 허승호 선교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점심식사도 하지 못한 채 공항으로 급히 돌아와 약 2시간 정도 지연된 볼리비아 경비행기를 타고 밤 11시가 넘어 산타크루스에 도착했습니다. 볼리비아 공항의 독특한(?) 입국수속을 무사히 마치고 밤 12시 30분이 넘어 볼리비아순복음교회에 도착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여선교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해주는 육개장과 김치를 비롯한 각종 나물과 달걀무침과 김 등 맛과 감동이 넘치는 야찬을 했습니다.

귀한 헌당예배를 위해 파라과이 장명준 선교사님과 아르헨티나의 서장원 선교사님이 함께 합류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교회와 선교지, 2천 명 이상 수용 가능한 기도원 대강당 건축현장과 대학을 돌아보며 현지에 계신 분들과 반가운 만남도 가졌습니다.

수요일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4시가 넘어 23인승 작은 버스를 꼭 채워 이소소 인디안촌을 향했습니다. 5시간 포장도

로를 달리고, 3시간 비포장도로를 달려 이소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현지인 성도들과 초대받은 이웃들이 교회당에 모여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당예배를 드리는 내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전명진 선교사님과 조순희 사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생각나서 계속 눈물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상급과 기쁨 또한 너무 크게 믿어지는 감격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짧게 드러진 예배일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상급과 큰 영광이 되는 성전건축에 우리 교회가 힘이 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소 4마리를 잡아 바베큐 하는 큰 잔치가 계속 되었고, 저희 버스는 오후 3시 30분쯤에 출발했는데 비포장도로의 흔들림에 버스 앞 쇠로 만든 범퍼가 떨어져 앞바퀴가 터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약 1시간 정도 차 바퀴를 바꾼 후 무사히

호텔로 돌아왔는데,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간임에도 여선교회에서 김치 찌개를 맛있게 끓여 호텔로 가져오는 사랑으로 왕복 17시간 좁은 버스여행의 피곤을 다 씻게 되었습니다. 머무는 기간 내내 한인교와 현지인 성도들의 헌신과 정성을 다한 섬김은 저희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출발도 새벽 1시 59분으로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5년 만에 만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다시 와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저희들의 작은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대만과 유럽 총회 선교사가족 초청행사를 통해서도 ‘Not I But Christ!’의 믿음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을 순종하는 승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김재성 교수 칼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혜택들 (3)



김 재 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명예교수

“합성적 성육신적 교통(resultant incarnational communion)과 결합적 연합(hypostatic union)은 사람이신 예수님과 관련되는데, 그 분은 자신의 인간성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지만, 죄는 없으시다. 신비적 교통(mystic communion)은 믿음에 기초한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접붙되는 것이다. 영적인 교통(spiritual communion)은 신비한 연합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과 성령의 점진적 즐거움이다.”(W. Duncan Rankin, “Calvin’s Correspondence on Our Threefold Union with Christ,” in *The Hope Fulfilled: Essays in Honor of O. Palmer Robertson*, ed. Robert L. Penny (Phillipsburg: P&R, 2008), 250.)

칼빈은 당대 여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만찬에 관한 바른 해석을 찾고자 논쟁할 때에,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때에 이런 내용들을 결정적으로 사용했다. 칼빈

이 성만찬의 유효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풀어놓았다. 앞에 인용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칼빈이 설명한 삼중적 연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보자.

첫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차원은 성육신적인 연합(incarnational communion)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영원한 말씀이 인간 본성과 연합하여서 보통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성육신적인 연합이 필수적인 이유는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게 되었음을 항상 잊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런 관점은 그의 『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에서부터 1559년 최종판까지 일관되게 강조되어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두 번째 차원은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신비적 연합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버미글리에게 풀이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자신을 제시하여 주시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음과 동시에,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오는데, 마치 머리로부터 온 몸으로 퍼지는 것과 같다.” *John Calvin to Peter Martyr Vermigli, 1555년 8월 8일자. 이 편지의 영어 번역본은 베자의 칼빈 전기에 수록되어 있다;*

Theodore Beza, The Life of John Calvin, tr. Francis Sibson (Philadelphia: J. Whetham, 1836), 309-311.

앞에서 맨 처음 설명한 성육신적 연합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신비적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신비적 연합은 택함을 받은 자들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영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지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 나온다. 칼빈은 이런 신비적 연합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35절 주석에서도 언급하였다. “우리들의 영혼은 내적으로 갖춰진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들 내부에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칼빈이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언급하는 부분이 가장 오해를 받은 부분이기도 하다. 칼빈은 전통적으로 중세시대부터 사용해 온 버나드와 같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동방 신학에서 상호입재적인 삼위일체론에서 근거하여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로 전이되어져서 존재의 “신성화”(theosis)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 “신성화”라는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고양되는 것,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두 가지 연합,

즉 신비주의적인 연합이나, 신성화하는 연합이나 모두 다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담겨져 있는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존 맥클린 교수는 이들 두 가지, 신비주의와 신성화라는 개념들은 칼빈의 “신비적 교통”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새로운 칼빈 신학의 해석들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하나는 칼빈을 중세시대의 신비주의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방신학의 후계자로 만들어 버리는 오류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세 번째, 칼빈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연합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연합”(spiritual communion)을 통해서 교통하신다. “영적인 연합”이 지속되는 것은 그보다 먼저 이뤄진 신비적 연합의 효과이자, 열매라고 칼빈은 설명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에 내적인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앞에 나왔던 신비적 연합이 단번에 이뤄지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면, 영적인 연합은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관계성이다. 이러한 교통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하며, 점점 더 강화된다. 특별히 성만찬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을 공급받으며, 힘을 얻는다. 복음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계속]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고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동안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일보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2등	3등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Tel (213)739-0403 chdailyreporter@gmail.com

[잘 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책]

천상의 안식,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축복



잘 쉬는 것

애덤 마브리 저
김보람 역

일상탈출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쉼의 복음

는 자들이 쉼 없는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한다.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 것이다 (히 4:10-11).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잘 쉬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금이 깔린 바닥에 누울 자리를 펴고 생명수 강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심금 생명나무 열두 가지 열매를 먹으며 빈둥거리는 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에서 잘 쉬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 영광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에서 마침내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를 증명하거나 결핍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헛되고 헛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 풍성한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영생이 곧 안식이다. 메사추세츠 보스턴에 있는 알레데이아 교회 담임목사인 저자 애덤 마브리는 “태생적으로 잘 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와 그의 독자에게 꼭 필요한 책, <잘 쉬는 것: 일상탈출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쉼의 복음>을 통해 ‘멈출 줄 모르는 세상에서 잠심 멈추기를 선택하는 믿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가치 있는지 설명했다.

저자는 무척이나 바쁜 사람이다. 그리고 쉬는 법을 잘 몰랐던 사람이다. 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영적 자원을 충분히 얻기 위해,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깨달음과 함께 잘 쉬는 법을 연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자신처럼 잘 쉬는 법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요구하셨는지, 안식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쉬지 못하는지, 잘 쉬는 것은 복음을 어떻게 강력하게 드러내는지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사실 일상이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지 고백하면서 건강하고 생산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쉬어야 함을 강조하는 책은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기독교 서적은 극단으로 흐르기 쉽다. 구약의 안식일을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주일에 교회생활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굴레(?)를 씌우는 내용이거나, 반대로 케케묵은 법조문은 폐기처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저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권장하는 내용이다.

저자 마브리의 <잘 쉬는 것>이 탁월했던 점은 안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에 강력하게 연결한 점이다. 잘 쉬는 것은 그저 편안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아니다. 세속적인 일과 종교적인 일을 나누어 오직 종교적인 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잘 쉬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기 시작할 때, 안식일을 소홀히 여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

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주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고 교회에 권면한 이유도 안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인간은 쉽게 잊어버린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이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영혼의 모든 만족이 되신다는 것, 오직 하나님 안에서서만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

복음이 약속한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곧 복음의 능력과 풍성한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덤 마브리의 <잘 쉬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그들이 정신 없이 바쁜 삶을 살든, 아니면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든,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 풍조를 거스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보다 돈, 자기 자신, 쾌락을 사랑하는 말세의 고통이 더욱 깊어질수록,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픽사베이

는 주님의 음성에서 더 신속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반응해야 한다. 사라져 버릴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온통 빼앗긴 마음을 되찾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바치며 안식일의 찬송 시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시 92:5).

영원한 천상의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사는 축복을 주께서 마브리의 이 책을 통하여 독자에게 선사하시기를 기대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2

Devote yourselves to prayer,
being watchful and thankful.

Colossians 4:2



2020. 6

복음은 안식을 약속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안식은 죄가 망친 인간의 삶에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필요악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 없는 세상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평가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창조 사역에 지친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다.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만물은 모든 생명과 온갖 좋은 은사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충분한 쉼을 누렸다. 안식은 그래서 축복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 @FIplumbing
- @FIPlumbing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오펜하이머> (1)

오펜하이머와 맨해튼 프로젝트, 인류의 비극이자 한국교회의 해방

북핵, 생존 직접적 위협 악 결집체
원폭 투하로 일제강점기 완전 종료
한국인들, 핵무기에는 양가적 감정
기독교인들에 신사참배 박해 종결
우상숭배와 전쟁범죄 준엄한 심판
영화 메시지, 한국 관객 인식 충돌

◆서구에서 본 핵무기: 일본인들의, 그리고 전 세계인의 비극을 가중시킨 맨해튼 프로젝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는 이론물리학자 J.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생애에 관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오펜하이머가 물리학에 전념하던 대학원생 시절(1925)부터 공산주의자로 몰려 모든 공직과 연구 활동에서 강제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장년의 시기(1959)까지 약 35여 년의 시간을 배경으로 삼는다. 영화의 서사 전체는 오펜하이머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미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맨해튼 프로젝트(1942-1947)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영화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만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이미 나치 독일이 확실한 전쟁 승리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었다.

독일은 1900년대 초반 막스 플랑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등 걸출한 이론물리학자들을 배출한 물리학 강

그림, 우란 프로젝트(das Uranprojekt)를 시작했다. 영화 <오펜하이머>는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미국 이론물리학자들과 군 지휘부가 독일보다 늦게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며 느꼈던 초조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의 연출은 오펜하이머라는 인간 개인을 둘러싼 삶의 정황과 그의 심리상태를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놀란 감독 특유의 세련된 연출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데 대해서는 평론가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오펜하이머> 개봉 전 이 영화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잠시 퍼졌던 소문은 우리의 관심 포인트가 작품의 본 서사와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놀란 감독은 많은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및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문화에 매우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인물이다. <다크 나이트> 3부작에서는 악당 라스 알 굴(리암 니슨 분)이 수장으로 있던 '어둠의 사도'를 일본식 닌자집단으로 그려냈고, <인셉션>에서는 일본 굴지의 대기업 집단을 이끄는 사이토 회장(와타나베 켄 분)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까닭에 일본 시내와 일본식 가옥이 주된 배경 중 하나로 등장한다. 또 사이토 회장은 작품 내에서 나름 카리스마와 매력을 갖춘 인물로 그려진다. 할리우드의 대표적 일본 문화 애호가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만큼은 아니더라도, 놀란 감독이 일본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우호적인 성향은 이전 작품들을 통해 분명하게 감지된다. 따라서 <오펜하이머> 개봉 전 한국에서는 이번 작품이 핵무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이론물리학자 오펜하이머의 생애를 그려낸 영화, <오펜하이머>.

프로젝트의 결과를 확인한 오펜하이머의 시각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할 뿐이다.

◆한국교회가 본 핵무기: 신사참배 압제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준 하나님의 심판

놀란 감독이 이 작품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진지한 휴머니즘이다. 일본에 원폭이 투하되고, 강대국들 간 핵무기 경쟁이 시작되고, 상호 확증파괴의 위태로운 형국 속에 전 인류가 상시적으로 종말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20-21세기 현실에 대한 진중한 위기의식이 영화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오펜하이머 개인의 불안정한 심리와 이기적인 공명심, 여기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군사 패권을 향한 미국 지도층의 끝을 모르는 탐욕과 편협함이 합쳐져, 역사상 가장 위력적인 대량살상무기가 탄생한 사실이 영화 전체를 통해 비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 그것도 한국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놀란 감독과 사뭇 다른 시각으로 이 작품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우선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핵무기는 직접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악의의 결집체임이 분명하다. 북핵 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현실에서 핵무기 위협은 우리에게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놀란 감독의 메시지가 충분히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에 떨어뜨린 두 발의 핵무기에 대해 우리 한국인들의 감정은 양가적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사건은 인류에 커다란 비극이 더해지는 출발점이었다. 동시에, 우리 한민족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 종료를 완전하게 결정짓는 시점이기도 하였다.

1945년 8월은 이미 일본의 패전이 확정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원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군의 대규모 일본 본토 상륙과 지지부진한 내륙 게릴라 섬멸전이 이어졌을 것이다. 이는 전쟁이 연장됨과 동시에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에까지 전쟁의 불씨가 옮겨질지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만일 그랬다면 미군이 일본 본

토 점령에 발목을 붙잡혀 시간을 끄는 사이, 소련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겠다는 명분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 괴뢰국으로 삼았을지도 모른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리틀 보이와 팻 맨, 이 두 발의 폭탄은 일제의 신사참배 박해를 완벽하게 종결시켜 준 한국교회 해방의 배달부였다. 실제로 원폭 투하 사실을 알게 된 한국교회 주요 인사들은 이 일을 일본의 우상숭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보았다.

한국교회 내부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펼치던 이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일본 본토가 전쟁의 고탕(劫火)에 휩싸일 것이라는 예언적 선견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박관준 장로와 안이숙 여사는 1939년 3월 일본 도쿄 중의원 회의장에 들어가 신사참배 반대를 외치면서, 일본이 폭정을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이 떨어지리라는 경고를 담은 건의서를 단상을 향해 내던졌다. 박관준 장로의 경고는 1945년에 이르러 현실화되었다. 일본 주변 제해권과 제공권을 모두 장악한 미군은 커티스 르메이(Curtis Emerson LeMay) 장군 지휘 하에 사이판 기지에서 수백 대의 B-29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일본 대도시와 중소도시 전체를 네이팜탄으로 전소시키는 무시무시한 공습을 진행했다. 거의 모든 일본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원폭 투하 전에 이미 거의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떨어진 두 발의 원폭은 일본의 정치지도자들과 군 수뇌부의 전쟁수행 의지를 완벽하게 좌절시켰다.

사정이 이러했던 까닭에, 오펜하이머가 주도했던 맨해튼 프로젝트, 그리고 그 위력을 실제 일본에 투사하기로 결정했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우리 한민족과 한국교회에 해방의 기쁨을 가져다준 위대한 업적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영화 <오펜하이머>의 메시지와 한국 관객들의 역사인식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 <계속>

박욱주박사(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겸임교수)



일본문화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 중 한 장면, 일본풍 가옥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국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히틀러는 독일이 보유한 이 물리학 역량을 막강한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30년대 들어 나치의 유대인 박해가 심해지자 아인슈타인 같은 유대계 학자들은 타국으로 망명했지만, 하이젠베르크 등 남아있는 물리학자들이 나치 당국의 지시를 받아 1939년부터 독일판 핵무기 개발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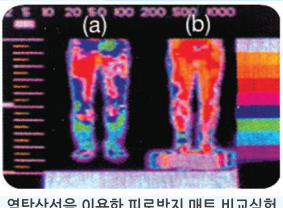
기의 끔찍한 위력과 비인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원폭 피해 일본인들을 선량한 피해자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소문이 돌기도 했다.

물론 작품이 개봉된 현재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영화 <오펜하이머>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장면은 들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 맨해튼

피로방지 매트

70%이상 피로 감소, 혈액순환, 하지정맥류 개선, 충격흡수, 관절보호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로방지 매트로서 일하는 곳 바닥에 탄력적인 표면을 제공하여 서서 일하는 분들의 근육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예방하고 피로로 인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게 해 드립니다.



열상상선을 이용한 피로방지 매트 비교실험 (혈액순환 정도와 근육 피로도를 비교한 그림)

E-MAT

블랙

36.5X 25 inch
~~\$176~~ **\$80** +Tax

목사님!
편안하게 피로방지매트에서 설교하세요.
서서 설교하실 때 충격흡수를 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피로를 줄여드립니다.
바닥에 앉아 기도하실 때 기도매트로 좋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어머님, 아버님 미끄러지지 마세요!

미끄럼에 의한 골절과 상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죠?
미끄럼 방지 매트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침대 옆, 화장실, 주방, 거실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NEW SUPER SAFE MAT

녹색

36.5 X 24.5 inch
~~\$100~~ **\$50** +Tax

SUPER SAFE MAT

파랑

대 35.5 X 23.5 inch ~~\$100~~ **\$50** +Tax
소 31.5 X 15.75 inch ~~\$80~~ **\$40** +Tax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리|모|델|링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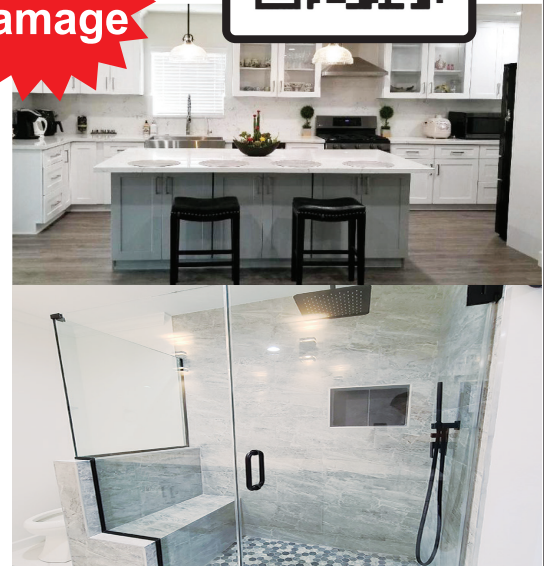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Water
Damage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K-Urban Builders In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